



KOCHAM ECONOMIC REPORT

제 2013-24 호

2013년 4월 5일(금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2월중 무역수지 적자폭 예상외 감소
- 2) 3월중 신규 취업자수 예상치 큰 폭 하회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무디스,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지적
- 2) OECD회원국, 지난 2012년 4/4분기 경제 규모 마이너스 성장 기록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휴렛팩커드 레이 레인 회장, 오토노미(Autonomy)부실인수 논란으로 사임
- 2) GM 애커맨 최고경영자, 한반도 상황 악화시 생산 이전 고려 시사
- 3) 삼성전자, 베스트바이에 전용 매장 마련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2월중 무역수지 적자폭 예상외 감소

- 지난 4월5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2월중 무역수지가 430억 달러 적자를 기록, 전월비 3.4% 감소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446억 달러 적자를 하회하는 결과
- 금번 결과는 중국, 남미 지역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, 원유 수입량은 급감했기 때문
 - 지난 2월중 수입액은 의류 등 원유 이외의 제품 수입이 증가, 2,289억 달러를 기록
 - 같은 기간 수출은 1,860억 달러로 전월비 0.8% 증가

2) 3월중 신규 취업자수 예상치 큰 폭 하회

- 지난 4월5일(현지시간) 미노동부는 3월중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8만8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19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
 - 또한 2월 신규취업자수는 당초 23만6천 명에서 26만8천 명으로 상향 조정
- 전문가들은 시퀘스터로 인한 경제 불투명으로 신규 고용 대신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등 신규 고용을 꺼려하고 있다고 분석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지난 2월 실업률은 전월비 0.1%p 하락한 7.6%를 기록, 2008년 12월 이후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
 - 이는 고용시장 개선이 아닌 노동시장 참가율이 급락했기 때문
 - 2월중 노동시장 참가율은 63.3%로 197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
-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시장은 아직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으로 하반기 들어서야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무디스,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지적

- 지난 4월5일(현지시간) 신평사 무디스는 일본의 새로운 통화부양책이 장기적으로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
 - 지속적인 재정 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일본 국채 신뢰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
 - 또한 일본의 국내 저축 대비 부채 조달능력의 여력 정도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진단
- 한편 무디스는 BOJ의 현 정책은 오는 201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2) OECD회원국, 지난 2012년 4/4분기 경제 규모 마이너스 성장 기록

- 지난 4월4일(현지시간) OECD는 역내 34개국의 작년 4/4분기 성장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.1%를 기록했다고 발표
- OECD는 금번 결과의 원인이 기업들의 재고 감축 때문이라고 지적
 - OECD 국가들의 재고 감축로 인해 4/4분기 성장의 0.3%p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
 - 또한 정부 지출 감소로 성장이 줄어든 부분이 0.1%p로 분석
- 반면, 투자는 성장을 0.1%p 증가하게 한 요소로 작용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휴렛팩커드 레이 레인 회장, 오토노미(Autonomy)부실인수 논란으로 사임

- 지난 4월4일(현지시간) 마켓워치는 휴렛팩커드 레이 레인 회장이 오토노미(Autonomy) 부실 인수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임했다고 보도
 - HP는 레인 회장이 사임하고 회사 이사진인 랄프 위트워스 릴레이셔널 인베스터스 대표가 정식 회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힘
- 레인 회장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여론에 거세진 것은 지난해 HP를 곤경에 처하게 한 오토노미 인수 때문

- HP는 2011년 하반기 영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노미를 110억 달러에 인수, 하지만 이후 고가 인수 논란에 시달린 바 있음
- 또한 지난해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에서 큰 손실을 낸 후 오토노미가 인수 당시 부정회계로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인수 대금의 88억 달러를 상각 처리, 이 일로 주주들의 공분을 산바 있음

2) GM 애커맨 최고경영자, 한반도 상황 악화시 생산 이전 고려 시사

- 지난 4월4일(현지시간) 댄 애커맨 최고경영자(CEO)는 CNBC에 출연, 한반도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GM 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
 - 그는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험해지면 GM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
- 한편, 애커맨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고,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곧바로 차량 생산지를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힌바 있음
- 현재 GM은 한국에서 연간 내수용 14만5천 대,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쉐보레 스파크를 비롯해 수출용 차량 130만대를 생산하고 있음

3) 삼성전자, 베스트바이에 전용 매장 마련

- 지난 4월4일(현지시간) 베스트바이는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, 카메라 등을 전시하는 삼성 전용매장 1,400개를 자체 매장과 베스트바이 모바일 매장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
 - 삼성은 오는 4월8일(현지시간) 500개 매장 오픈, 다음 달 초까지 900여개 매장을 개설하고, 올여름까지 모든 입점을 완료한다는 계획
- 삼성은 이를 통해 애플의 텃밭인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전망